

인간의 모습으로 🐼

어린 시절, 주일 오후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우리는 뒷산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오후마다 즐기던 등산은 이제 소중한 옛일이 되었지만 집에 가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언젠가는 함께 산을 오르다가 아버지가 무심결에 개미탐을 밟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드러운 진흙에 찍한 커다란 발자국과 당신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개미집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이 살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여기저기 흩어졌지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무너진 흩더미를 한쪽으로 치워내시며 개미탐을 다시 세워보려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은 너무 컸고 개미는 그 손가락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잠깐이라도 개미가 될 수만 있다면 개미들을 찾아가 무엇이 잘못된건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알려줄텐데...."
그러나 아버지는 어른이고 개미는 보잘것없는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작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만의 세상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겁에 질려 허둥거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통, 죄악, 죽음이라는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답들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삶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채워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뒤죽박죽인 세상을 정리하시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공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출처 -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 앤 그레이엄 로츠 2002/03/13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